

데스크 시각



최재호 경제부장

지구촌 축제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끝났다. 태극 마크를 단 우리 선수들은 폭염 속에 신음하던 국민에게 정량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의 탐과 노력이 깃든 각본 없는 드라마에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 가며 호흡을 같이 했다. 그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찬사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4강 길목에서 탈락한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에 대한 애증이 교차했다. 그에 대한 댓글을 보면 관심이 대상이나 팀의 에이스는 결과에 따른 비난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믿음과 사랑이 큰 만큼 실망과 미움도 크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은행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역 은행이 있는 다섯 곳(부산, 경남, 대구, 전북)의 시금고는 당연히 향토은행의 몫이었다. 그런데 지난 47년간 광주은행이 당연히 맡아 오던 광주시 금고 유치에 대해 이력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50년 가까이 향토은행이었지만 이제 '광주은행이 향토은행 맞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물음에는 손흥민에게 쏟아지는 비난처럼 몇 가지 서운함이 작용하고 있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이다

는 것 같다. 우선 광주은행이 적자·중복 점포 23개를 통폐합하고 15개 점포를 2층으로 이전한 데 따른 시민 불만이다. 또 시중은행과 여타 다른 지방은행보다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간 높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사회공헌활동 비용이 감소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서운함의 밑바탕에는 시도민들의 광주은행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향토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라고 여겼다면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불만이 나올 리 없었기 때문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지방은행

사실 금융권은 초저금리에 따른 마진 압박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무인점포 등장 등으로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중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지역적·규모적 약점을 벗어 나 '비대면·탈(脫) 지방화', 영업망 다변화 등 경영 약화에 선제 대비하지 않으면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광주은행의 점포 통폐합과 2층 이전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생존 대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 사실상 점포가 2개 늘어난 것도 집중과 효율을 따진 것인데 수도권 23개 점포와 어르신 전용 점포 2개를 신설했다. 김한 행장은 적자·중복 점포를 축소하는 대신 지방은행이 도전하기 힘든 수도권 점포 23개를 신설해 소위 밖에서 벌어 안에서 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밝힌다.

광주은행은 또 2014년 하반기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 대출을 6월말 현재 889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렸다. 이는 전체 지방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방은행 평균 2.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호남의 경제 규모는 영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1차산업(농어촌 관련업종)비율이 높은 데다 산업 간의 연관효과가 높은 제조업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임직원들의 노력의 성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리의 차이에 대해 제조업이 적은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같은 지적마저도 광주은행으로서의 감내해야 한다. 향토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익 창출을 통해 하루빨리 취약한 금리마저도 시도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 역시 광주은행이 해야 할 몫이다.

광주은행은 U대회, 광주비엔날레, 여수엑스포 등 굵직한 지역 개최 국제행사 공식 후원과 9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며 향토은행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는 향토은행이라는 자긍심과 의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데 이를 여타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랑의 매' 겸허히 수용을

지방은행이 한 군데도 없는 충청권은 금융권 취업에서 지방은행이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과거 대전·충남을 대표하는 충청은행이 있었지만 하나은행에 흡수되면서 충청권엔 지방은행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은편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불발두위가 점령했던 8월도 끝나간다. 열대야 탓에 밤잠을 설치다가도 이른 아침이면 갓 태어난 새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한다. 땅 주인은 따로 있으나 아파트 배란다 앞쪽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푸른 숲은 모두 내 차지다. 건강에 좋다는 녹시율(綠視率)도 만점이다.

정년퇴직은 평생을 직장과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로운 인생후진이다. 필자는 요즘 옛 동료들과 산행 후 담소를 나누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은퇴 후의 안락함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인생이다

다. 노년의 외로움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던가.

정신의학자들은 나이 들어 배우려 하지 않고 계속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거나 현상유지를 바라는 심리상태가 노욕(老慾)을 부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해가는 정보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눈갑을 일기 아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짙긴 관념의 끈으로 자신을 묶어놓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간혹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 날이면 힘이 솟는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과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세였다. 급세기 초까지만 해도 50세에 불과했던 것이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80세 인공에 이르렀다. 60여 년 전 긴 수명의 할아버지 회갑 사진을 떠올리며 격세지감에 잠긴다.

미국 여류작가 도티 빌링턴은 “듣기보

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늙었다는 증거”라고 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토를 달지 못해 좀이 쑤시기 시작하면 나이 든 징조란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할 것이다. 백발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이를 말한다고 하지 않던가. 지혜 없이 백발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젊은 날엔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현명해지는 줄 알았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 가야 한다. 나이는 육신이지만 마음은 삼십 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견제함을 강조하는 말일 수 있으나 늙어서도 젊은이의 마음에 짐작하다 보면 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적인 노인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이란, 앞 강물, 뒷 강물 하면서 흘러가다가 하구에 이르면 바다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난 바다로 안 갈래” 하면서 버틸수록, 그게 웅덩이가 돼 서고이고 썩는다. 그러면 노년이 추해진

또한 경남과 대구은행은 광주은행보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 금액은 많지만 비율을 따지면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이 훨씬 많은 셈이다. 하지만 전년 대비 사회공헌 활동금액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아파게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단 해체에 따른 비용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고, 올해 다시 남자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는 등 곧바로 이를 바로잡지만 다시는 사회활동 공헌금액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 금융, 서비스 따위의 사업을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다. 광주은행도 기업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이라는 왕관을 쓰는 순간 단순 기업이 아니다. “왕관의 무게를 버티는 자만이 왕관을 쓸 수 있다”는 말처럼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서 시도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픈 지적들마저 겸허히 수용하고 수도권 점포 진출처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익 활동을 통해 그 이익을 시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지혜를 짜 내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이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했으면 시도민들이 이처럼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지적하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는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향토은행이라는 왕관을 쓰는 순간 광주은행도 손흥민처럼 비난의 아픔도 감내해야만 하는 숙명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 금융권 부동의 에이스 향토은행이기 때문이다.

/lion@kwangju.co.kr

社說

예산 낭비 초래하는 선심성 사업 더는 안 된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두드러진 폐단은 단체장의 치적용 사업이나 선심 행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 행편이 극도로 어렵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많다.

최근 전남도는 22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모두 425개의 개발 사업에 대해 상위 계획과의 적정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 검토했다. 결과는 253개의 기존 사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9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규로 계획한 172개 중에서도 상당수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일선 자치단체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누누이 당부했지만 현장의 외면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지역에 잘 실행 안 되고, 예산 확보마저 어려운 사실을 뻔히 알지만 민원 해소용이나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

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같은 천편 일률의 구호 속에 정치적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발전과 연관성이 떨어져도 실현 자체가 어려운 사업들은 언젠가는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진척 단계까지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은 고스란히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이어서 큰 손실을 불러오게 된다. 물론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선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별 문턱을 낮추고, 수지 타산까지 꼼꼼하게 따진 후 실행에 옮겨야 비효율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일선 지자체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개발 사업 행태에 메스를 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앞으로도 보다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작용 해소 방안 찾아라

전남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등교교를 하는데 통학버스로 두 시간이 걸리는 곳이 있다고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인데 교통사고 위험과 학생 건강 등이 우려된다.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 농산어촌 학교 311개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등교에 1시간 이상 통학거리 30km이상인 학교가 93개교 123개 노선에 달했다. 80km 이상인 학교도 1개교가 있었고, 60~69km 9개교, 50~59km 7개교 등이었다.

특히 순천 회서초등학교는 통학 버스 운행거리가 무려 84.8km에 달하는데 산간 지역 도로 사정과 통학버스의 점을 감안하면 한 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체력 소모에 따른 건강권 침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통학 거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장 큰 이유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전남

의 초·중·고교 163개교가 사라졌다.

이 같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붕괴를 부르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통학 불편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면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면 수 농산어촌 황폐화를 부채질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올해 기준보다 권고안을 강화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전남 지역 통폐합 학교는 416곳으로 확대되는데 전남 전체 898개교 가운데 무려 46.3%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전남 지역 학교 2개교 중 1개교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 나름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고충과 근거가 있겠지만 매년 백년대계인 교육을 행·재정적 효율화만으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 한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콜레라는 원래 인도 지방의 풍토병이었다. 풍토병이 전염병으로 변한 것은 산업화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 19세기 들어서였다. 영국 선박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인도 벵골 지역을 드나들면서 유럽으로 전파됐다. 러시아가 이슬람 지역을 여러 차례 침략한 것도 콜레라 확산의 원인이 됐다. 해마다 순례 여행을 떠나는 이슬람교도와 접촉하면서 전염병을 옮겼다는 설이다.

에드가 앨런 포는 1842년 '빨간 죽음의 마스크'라는 소설을 출간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 왕자는 백성들을 출간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 왕자는 백성들을

15년 만의 콜레라

바리 상류층들의 총말을 풍자했다. 의학 전문 작가인 존 퀴어조는 콜레라를 세상을 바꾼 10대 의학의 하나로 꼽았다. 영국에서 1932년부터 35년 동안 세 차례나 유행하자 유행해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공중위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집요한 추적 끝에 오염된 우물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급수 시스템을 바꾸고 공중위생법을 제정해 문명을 한 단계 진일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선 1946년 1만5600여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62% 인 1만181명이 사망했다. 1972년 2월에는 김중철 총리가 '콜레라 박멸의 해'로 정하고 보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1980년 9월에는 신안 기자도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손님들이 콜레라에 감염돼 두 명이 사망한 일도 있다.

후진국형 전염병으로만 일던 콜레라가 15년 만에 발생했다. 유난히 더운 올해 폭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지만 방역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만 횡집만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광주만의 아동복지시설 모델 개발 필요하다

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편, 평가기간 동안 몇 가지 느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용어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의 장을 시설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 계시는 시설장들은 용어로 불리는데, 평가에서는 시설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이 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지도원 선생님께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데,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은 아동들의 생활전반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다. 생활지도원 하면 누군가를 지도하는 의미가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듯했다. '시설장'이나 '생활지도원'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을까?

둘째, 아동복지시설평가가 평가지표는 56개나 되고 하위 항목까지 하면 300개가 넘는다. 평가지표 및 하위항목 모두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평가위원이 해석하는 평가항목의 해석의 차이를 감안

한다면 평가지표 및 항목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또한, 평가위원은 평가지표를 협의로 해석하려고 하고, 현장전문가들은 평가지표를 광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 및 해석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또한, 현장방문을 하여 보니 현실직접성이 떨어지는 평가 지표도 있었으며, 평가위원들 교육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셋째, 12개 아동시설 모두가 자신의 시설을 위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시설은 상담 및 심리 치료센터를 설치하여 특화되어 있으며, 어떤 시설은 합창단으로 지역사회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설은 넓은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어떤 시설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시설은 재정 및 조직운영과 지역사회관계를 잘하고 있었다. 각자의 시설마다 장점을 서로 묶어낼 수는 없을까? 중요한 것은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활용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광주아동복지시설협회에 주축한다. 본 협회는 12개 광주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협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안다. 협회에서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협회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광주만의 아동복지시설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마다 특수한 환경과 여건이 있기 마련이다.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보조금 또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선진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으로 운영하여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협회차원의 교육사업을 제안한다. 협회에서 시설들 간 평가와 관련된 해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며, 현장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역량을 함께 묶어내고 키워내는 일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각자의 장점이 있는 시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시설마다 장점을 공유한다면 광주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은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한 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생각이 모이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미래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20-0652	사진부 220-0693	*우편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